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2021. 7. 8.(목) 14:00

주요업무 추진상황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 7기 출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함께하는 도민」을 바탕으로 「일등경제 충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도·시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도민·청주시민들의 염원대로 청주도심통과 노선 단일안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충북선 활용방안과 함께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도심통과 노선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충북선 활용방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청주도심통과 노선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이외에도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12건의 철도사업이 반영되어 앞으로 충북은 명실상부한 철도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값진 성과를 얻기 위해 사생결단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과 청주시장·진천군수·옥천군수님 등 시장·군수님, 도·시군 의회 의원님,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언론인 그리고 도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기재부는 20년 숙원사업인 서청주~증평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여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확정된 것을 2008년 MB정부가 취소하고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시작한 지 20년, 사망 선고된 지 13년, 부활시키려고 애쓴 지 11년 만에 이뤄낸 ‘길고 긴 잔혹의 역사’이며, ‘인내와 끈기로 이뤄낸 불사조의 드라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충북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수출(249억불)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투자유치 8조 6천억원, 5월 고용률 전국 2위(70.4%)로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을 굳건히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 속에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도 코로나19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7월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과 변이바이러스 확산, 수도권외의 확진자 급증으로 언제, 어디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되, 중점관리·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신속항원진단 및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확진자 조기 발견, 여름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부터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 1조 977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정부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도에 대략 4,24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호축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으로 충북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강호축 발전포럼 활성화, 강호축 마라톤 대회 확대 등 강호축 개발의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강호축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금년중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는 충청권 공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현재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8년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오송·충주 바이오국가산업단지는 하반기 국토부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고 '27년 완공을 목표로 서둘러 조성하겠습니다.

청주권과 비청주권, 도시와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균형발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설립은 '22년까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23년까지 완료하고, 충북도립대학교 기숙사는 '23년 상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비롯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농시(農市)는 지난해 4개 시군(영동증평.괴산.단양)에 이어 금년 4개 시군을(청주.옥천.진천.음성) 추가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과수화상병은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은 결과 현재까지 발생면적이 지난해(281ha) 대비 32% 수준(91ha)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진단 및 방제법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치료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등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내년 9월 예정인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은 하반기 건축설계에 착수하고, 오송 실내다목적 체육관은 청주시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전시관은 하반기에 본격 착공하고, 내륙권 최고의 해양과학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내년 4월 개관하고,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은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는 청남대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성지로, 국민통합과 포용의 산실로, 나라사랑 교육의 전당으로 승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장애인 회관 건립,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살뜰히 살피고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300병상 규모의 국립 소방병원은 서울대 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하반기 본격 착공합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자립을 돕기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확대 시행(1,410명) 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역량강화사업, 가족센터 건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충북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고 10월에는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이전으로 현장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한 자치경찰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4,805대)·수소차(1,092대)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4,982대), 산림흡수원 확대 등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1일 환경부는 경기도로 할애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물량 중 10만 8천톤을 다시 충북으로 공급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II단계 광역상수도 물량의 절반 이상 규모로 충북 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공업용수를 대량 확보한 값진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앞으로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인 강호축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그리고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민선 7기 4년 차에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